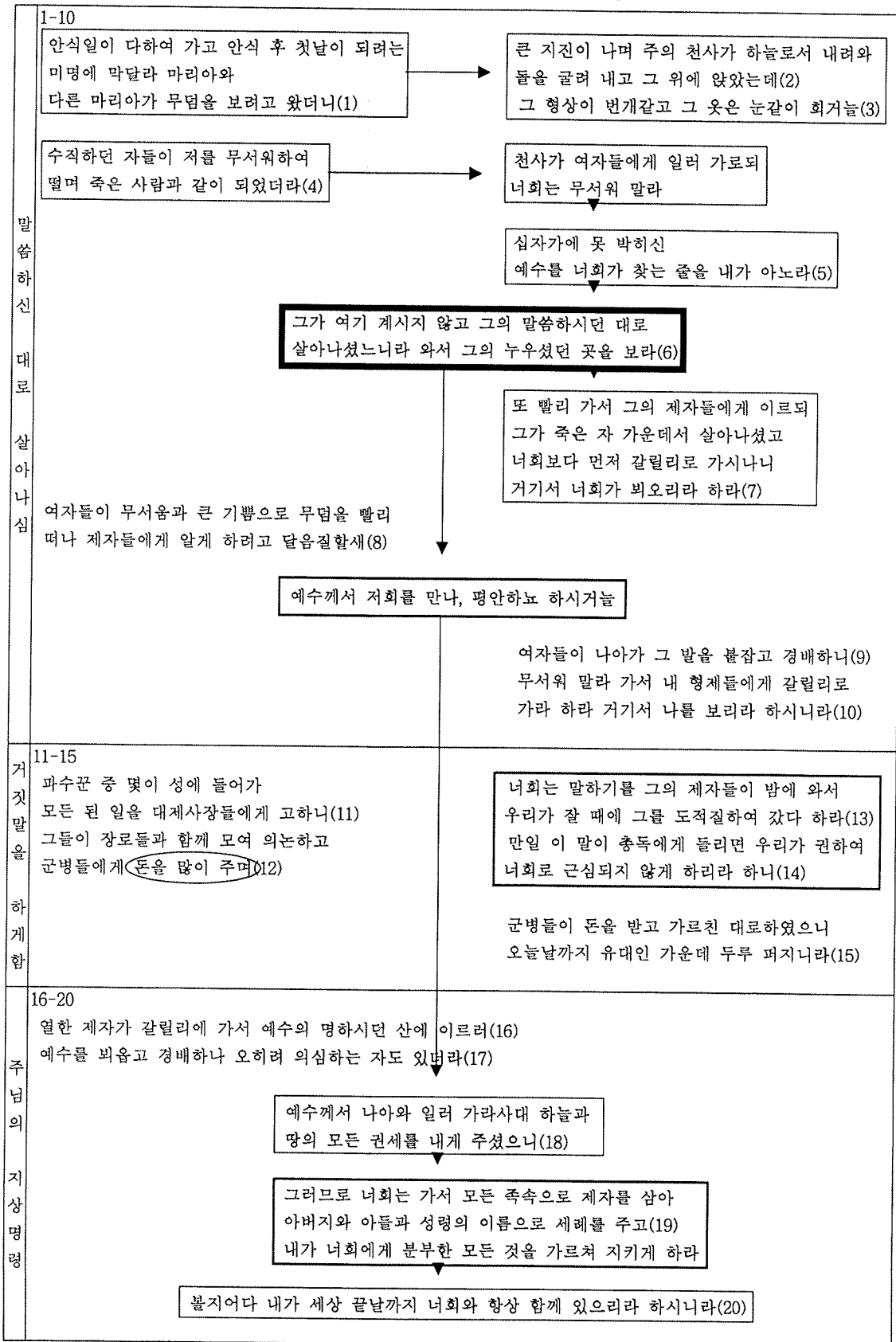


마태복음 28장 개관도표  
 주제 :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과 보장



##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과 보장

요절 :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 개의 복음서가 동일(마 28:6, 막 16:6, 눅 24:6, 요 20:16)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가? ㉠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롬 1:4)을 증거합니다. ㉡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셨음(히 2:14)을 증거합니다. ㉢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합니다. ㉣ 우리 부활의 보증(고전 15:20)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장해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役事)는 이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0)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

둘째 단원(11-15)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셋째 단원(16-20) 주님의 지상명령

첫째 단원(1-10)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1).

① 여인들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막 16: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본 단원의 중심점은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 한 “부활고지”(復活告知)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수태고지”(눅 1:31)를 했고, “탄생고지”(눅 2:11)도 했습니다.

②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기사(記事)를 대조해보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성(多樣性)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은 것이 두 여인으로 되어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엽적인 면에서는 다양성(多樣性)이 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처럼 다양성이 있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③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5상), 천사가 한 말은 논리가 정연합니다.

㉠ “너희는 무서워 말라” 하고, 우선적으로 안위(安慰)해 줍니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니”(5하) 하고, 저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합니다.

㉢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상)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사셨음을 증거합니다.

- ㉔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6하) 하고 부활현장을 확인(確認)을 시킵니다.
- ㉕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7)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합니다.

### 살아나셨느니라

① 부활 증거에 있어서 핵심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 한, “말씀”에 있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세 번(16:21, 17:23, 20:19)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신 것까지를 합치면 그 이상입니다. 천사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해줍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②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확증(確證)은 또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 하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요 15:26)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위탁하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라” 한 다윗의 예언(시 16:10)을 들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행 2:29-32) 합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다윗은 죽어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한 것이 자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③ 사도 바울도 이 시편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행 13:36-37) 하고 말씀을 들어 증명을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근거를 자신들의 체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24:35)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창 21:1-2),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 말씀하신 대로

①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왕이시라”는 것이 입증(立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② 둘째로, “예수는 우리 범죄 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범죄 함을 위해서, 즉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빛을 갠 사람이나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되는가? 그것은 빛이 다 청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 없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살아나심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있는 것입니다.

③ 셋째로, “여자의 후손은 네(뱀,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 3:15) 하신 원복음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합니다. 그러면 왜 혈육, 즉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히 2:14-15)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사탄의 머리를 상한 것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충동인 것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하)였던 것입니다.

④ 넷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빌 3:21) 하십니다.

⑤ 다섯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확실성을 말씀해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 22:12-13). 하나님의 나라건설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재림도, 완성도 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⑥ 여섯째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건설의 동력(動力)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가? 저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눅 24:17, 32-33)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확신하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 소망도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딤후 2:11-13) 하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고난의 현장(現場)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런 도망자요 부인(否認)자였던 겁쟁이들을 무슨 힘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했던 말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토록 목숨을 내놓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어찌되는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고전 15:14-15)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 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今生)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7-19)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바울이나 스테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 ②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 할새”(8),
- ㉠ “평안하뇨!” 하는 정다운 인사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 ㉡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 ㉢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9-10).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성이 아닌가? 이를 복음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해변 가에서 주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조반”(朝飯)상에 참여함(요 21:9-14)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모세에게서, 또는 바울에게서도 보는 바입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아 곧바로 선교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보냄을 받아 3년을 지내는(갈 1:17-18)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10).

마태복음 28:11-20절

둘째 단원(11-15)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11).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파수꾼으로부터 “모든 된 일”을 보고(報告) 받은 산헤드린 공회가 주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지어 퍼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27:64)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은 빌라도에게,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27:63)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12-13) 하고, 끝까지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면서도 도적질하는 것을 보았던 말인가? 보면서도 잡지 않았단 말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시체를 도적질해갈 용기가 있었던 말인가?”

②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15) 합니다. 무덤으로부터 전파된 메시지는 여인들이 전한 진실과, 군병들이 전파한 거짓의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주님을 장사지냈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음모는 이제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③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난다”(롬 1:18)고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시도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발악적입니다. “다빈치 코드, 유다 행진,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등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현대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만일 설교자들이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힘있게 증거했다더라면 이런 거짓은 발붙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성경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지 못한 설교자의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④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 표적을 보고도 중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보여줄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12:39-41) 하신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셋째 단원(16-20) 주님의 지상명령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16),

①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마태복음에는 우뚝 솟은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 산상설교를 말씀하신 8복의 산(5:1)이 있습니다. ㉡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변화산(17:1)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지상명령(至

上命令)의 산(16)이 그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힘들고 어렵거든 8복의 산에 올라 변화산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지상명령의 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② 약속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17)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눅 24:37)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③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18) 하십니다. 이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시는 명령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십자가 군병들을 총지휘하시는 사령관은 어떤 권세가 있는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점을 계시록에서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1:18) 하십니다.

④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일곱 교회로 상징)를 모아놓고 작전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계 2:26-27). 이 권세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 2:27하) 하신 대로 주님이 받아 가지고 역사하신 권세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시 2:7-9)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즉 교회에 위임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⑤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복음)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선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죽도록 충성) 아니하였도다”(계 12:11) 합니다. 복음을 보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이것이 영적 전투요, 선한 싸움이요,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堅固)한 진(陣)을 파(破)하는 강력(強力)이라”(고후 10:3-4).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가 형제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제자 삼으라

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십니다.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자는, 10족장들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보내시는 곳에 가는 자입니다.

②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모든 족속”이라 하심은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개방되었음(엡 2:15)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하신 “씨”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창 22:17-18) 하신 언약은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세계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증거 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③ 이 제자 삼음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가르침”의 방도를 통해서 만이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6) 하십니다. 가르침을 “계속한다”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방도입니다. “계속한다”는 것, 여기에 제자를 삼는 비결이 있습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④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의 인치심(3:16-17)으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만나심을 본 바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위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역사 하심으로만이 가능하여짐을 의미합니다.

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보장(保障)입니다. 보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1:23) 하고 시작하여,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로 대단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1-12)는 보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임(大任)을 맡기실 때도 보장해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수 1:5)는 보장입니다. 함께 있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수 23:3) 하십니다.

⑥ 저는 요한계시록 파노라마에서 계시록을,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병법”(兵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겨야 한다”고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사탄)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고 친히 선두에 서서 싸워주십니다.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 17:14) 합니다. 이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뜻입니다.

⑦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그 주님은 이제 형제와 함께 하심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⑧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1)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수 천년을 달음질하여 여기까지 이르러 드디어 결실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끝 날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건설을 완성(完成)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달음질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살후 3:1-3). 아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 파노라마 끝

수료자: 금동성, 최영철, 이의로, 김은석 성도